

[오피니언]

특별기고

김덕만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영국의 청렴한 재상 윌리엄 피터스톤이 19세기 총리를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남긴 명언이다. 세상이...

시 가지지 않는다. 공무원수행 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 쪽에 편이 되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나 군수가 지역주민이 개입한 식당에 '축 발전 00군수'...

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

홍길동'처럼 기관명과 직위를 넣은 환한을 보내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환한을 받은 식당에는 환한을 전달함으로써 영업에 편이 될 수 있지만 옆집 환한을 받지 않은 동종 식당에는 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환한을 보내려면 기관명과 직위를 표시하지 않고 '축 발전 홍길동'이라고 쓰면 된다. 행동강령은 그동안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 왔는데 강화된 내용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

다. 금전거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긍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거래와 관련, 종전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했는데 빌려 주는 행위도 안되도록 했다. 높은 이자를 뇌물성 금품수수 명목으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최근 뇌물수수료 최고량을 차는 비리 공직자들을 보면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주장을 끝이 끝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 강의·회의를...

조사 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외부인의 열람이 불가능한 회원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건설 담당 공무원이 관내 건설업체에 청탁장을 보내면 위반이다.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직자 스스로 행동강령을 잘 지켜 위반자가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공직자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공직자들의 전체 비리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지만 비리발생 사례를 분석해 보면 수수액수가 커지고 수수방법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 행동강령의 규정들도 이에 비례해 점점 세분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이다. 정부에서는 공직행동강령 위반자를 색출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기관마다 감사·감찰부서가 있고, 부패신고전화 1398(일상고발)이 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부패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척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부패와 뇌물은 용수철처럼 누르고 있지 않으면 전염병처럼 급속 확산된다. 행동강령이 공직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부패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5·18 제29주년... '大同정신' 회복하자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스물아홉 돌을 맞는 날이다. 80년 그날, 민주와 인권,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며 목숨을 바친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며 웃기를 여민다. 오늘 망월동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여야 대표와 국회의원, 각계 인사,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민주영령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긴다.

5월 단체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한 것이다. 한마디로 80년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옛 도청이 싸움터로 변질될 뻔했다. 옛 전남도청 발발 철거를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인해 추모 열기도 예전같지 않다. 시대의 아픔과 절규를 벗어나 희생과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자던 외침은 어디로 갔던 말인가.

하지만 5·18을 맞는 광주의 심정은 착잡하다.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배일에 가려져 있고 행방불명자 역시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5·18의 역사적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5·18에 여전히 진행형이며 '미완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한다. 언제쯤이면 5월 영령들에게 잊혀지지 않을지 참담하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기념비이자 길이 기억될 진보의 역사다. 80년 5월 광주가 흘렸던 피와 눈물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밑거름이다. 철저한 진실규명과 더불어 5·18 정신을 올바르게 선양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도청발판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5월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더욱 그렇다. 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5월 단체들 간의 갈등은 도를 넘어섰다. 얼마전 5·18 구속부상자회가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농성중인 도청발판 앞으로 몰려가 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등 물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 29년 전 대동세상의 주체였던

80년 5월 광주는 공권력의 부패 속에서도 스스로 차치질서를 지켰다. 시민들 역시 주목받을 함께 나눠 먹는 대동세상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5·18 기념일인 오늘, 광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대동정신의 회복이다.

정치권 지역갈등 부추기는 말인 삼가야

5·18 29주년을 즈음해 광주를 찾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18 29주년 추모제가 열린 17일 하루만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많은 정치인이 5·18 묘역을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정치인들이 광주를 찾아 5월 정신을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5·18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확한 이해없이 원론적 입장에서 던지는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당 의원이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물갈이론과 광역시장 후보의 제3 인물론을 들고 나와 지역정가가 들끓었다. 이 발언은 지방선거가 1년도 더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생동했다. 더구나 광주는 하계U대회 유치, 도청발판문제,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역역량을 모아도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힘이 부친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선거 조기과결과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

정치인들이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갈등을 심화시키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판단이다. 지역현안에 대해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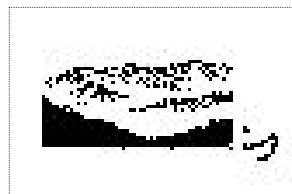
광주의 진산(鎭山)인 무등산의 옛길이다시 열렸다. 오랜 세월 광주와 화순, 담양 주민들이 소통했던 소통길이다. 산자락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단절됐던 산행로가 복원된 것이다. 가장 큰 매력은 광주 도심에서부터 곧바로 '걸어서' 무등산을 탐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수5거리가 그 출발점이다.

보다 감춰진 옛길을 찾아 연결하는 '숨은 그림찾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폭 60cm 안팎의 오솔길을 만들었다. 두 사람이 엮길러 지날 수 있는 최소 너비다.

15일 개방된 제1구간은 산수동~충장사~원효사에 이르러 7.75km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원효사~서석대까지 2구간(4.12km)은 다음달 초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총 길이는 11.87km로 무등산 높이(1,187m)와 같은 숫자다.

공사에는 무등산의 지형과 지세에 밝은 공무원사무소 직원들과 공공근로자 등 40여명이 투입됐다. 등산로를 걷다보면 곳곳에 땀 이들의 땅과 노고를 느낄 수 있다.

무등산 옛길



옛길 복원은 연간 800만에 이르는 탐방객의 75%가 중심사 지구에 편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요를 분산시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왔다. 시민들에게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산책길을 제공자는 취지도 담겼다.

나아가 복원된 옛길은 '소결을길' '입도(入道)의 세계' 등이 야기가 있는 길로 재탄생하게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지원을 받은 이아

따라서 복원은 새로운 탐방로를 찾기

깃살을 붙여 또 다른 형태의 생태복원을 꾀하고 있다. 이달 말엔 옛길 걷기행사와 숲속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가정의 달이자 녹음방초(綠陰芳草) 흐드러진 5월, 무등산 옛길을 걸으며 가족사랑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 /정후식 사설1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정호



신영철 대법관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서도 자리보전에 급급한 모습을 보는 것이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안타깝고 씁쓸하다. 모든 재판과정에서 소송관계인들이 마지막까지 반드시 불응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사법부 만큼은 법관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그것이다.

이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신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한 해결의 통로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지 않고서는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보호막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적절한 재판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한 대법관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기고

전완준



21세기를 흔히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속에서도 나라마다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 아니겠는가? 이는 문화의 존재방식이 경제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제는 상정 또는 경쟁의 논리를 따른다. 그러나 문화는 경제와는 달리 더불어 살아가는 노릇이다. 상생 또는 공존의 원리가 특징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단연 문화가 경제논리보다 앞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발전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라 차별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우리의 개성과 우리 스타일만을 고집했다.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각 읍·면의 민속문화를 재현하며, 우리끼리 즐기고 음미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햇수를 거듭하다 보면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썩어있는 내용으로 우리의 전통과 멋을 선보이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우리에겐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즐긴 풍류문화를 반추해 불만만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화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하니움(Hanium) 체류관'이 오는 8월 말에 완공될

백범의 문화강국을 꿈꾸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보다는 이름만 다르지 내용을 보면 모방과 중복투자로 인해 효용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지방마다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다. 시대적 배경에 따른 인물과 조상네들의 삶에 대한 애환, 그리고 고유한 민속문화, 먹거리 문화가 있다.

으로써 이전 문화의 갈등을 풀 수 있게 됐다.

우리 화순도 수려한 자연과 역사 문화유적이 지천에 널려 있으며 풍물을 비롯한 백성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다양한 민속놀이도 존재한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자연 속 사랑' 공동 브랜드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갈망하던 문화강국의 꿈을 우리 지역 화순에서 펼쳐보이겠다는 군민들의 열의를 담아 체육관 명칭을 '하니움'으로 정했다. 하니움(Hanium)이란 화합을 뜻하는 'Harmony'와 문화·스포츠헤터의 의미하는 'Centrum'의 합성어로 스포츠와 문화의 만남을 통해 화순인의 화합을 이루는 한마당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니움에서 내뿜는 문화의 향기는 1년 내내 화순 땅을 적시게 된다. 1분기엔 전국 시·사·화전을, 2분기엔 역사·문화탐방전을, 3분기엔 각종 경연대회를, 그리고 4분기엔 풍류문화 큰잔치가 열려 문화의 향기가 화순 전을 따라 멀리만 연 산까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자 '화순 풍류문화 큰잔치'란 주제로 축제를 열었다. 그 결과 우리는 축제의 주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라는 총화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특히 시대적 배경에 따른 우리 지역의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값진 소득이었다. 필자는 지난해 풍류문화 큰잔치를 준비하면서 철저히 '실사구시' 정신에 따

김구 선생이 그토록 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은 바로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사모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우리 지역이 자랑할 만한 문화에는 무엇이 있는가?'란 질문에 답을 풍류문화 큰잔치에서 얻고자 한다. 거기에서 나온 답이 바로 우리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화순군수>

약용식물 불법채취로 소중한 산림 명ندا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변화가 뚜렷하고, 산악지역이 많아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그중에서도 약용식물 자원이 아주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다.

적으로 불법 채취해 시장 등지에 내다 팔고 있어 약용식물의 고갈을 가져오기도 한다. 외국에선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와 희귀식물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증식 사업 전개는 물론 산림을 유지하고 있는 고저층별로 식물의 다양성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다. 약용식물 불법채취행위를 삼가고 지자체의 보호의지도 중요하다. ▲정경안·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양식과 먹는 약이나 음식 등으로만 유난히 건강을 지키려고 신경 쓴다. 사람의 몸에 좋다는 약용식물이 불법 채취꾼들에 의해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또한, 약용식물을 판매 목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